

금호타이어, 창사 이래 “최대위기”

노조 전면파업에 직장폐쇄로 맞대응 ... 중국에서 대규모 리콜까지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가 안에서는 파업과 직장폐쇄, 밖으로는 중국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3월25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이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이자 회사는 진격적인 직장폐쇄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에서 품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Tianjin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대규모 리콜을 발표한지 불과 4일만이다.

2010년 금호타이어는 시장점유율 16%로 1위를 지켜온 중국시장을 고스란히 내줄 수 있는 상황에 몰린데 이어 파업으로 310억원에 달하던 매출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불과 3-4년 전만해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캐시카우로 고수익을 내는 우량기업이었다.

1960년 삼양타이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1965년 타이에 7700억달러 상당의 타이어를 처음 수출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40%대로 한국타이어와 시장을 양분하며 1위를 놓고 었치락뒤치락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으며, 해외에서는 1980년 1억달러, 2005년 10억달러를 돌파해 2010년에는 180여개국에 18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글로벌 매출액이 2조9602억원으로 세계 10대 타이어 생산기업에 진입했다.

또 1975년 국내 최초로 항공기용 타이어 규격을 개발했고 1987년에는 수출용 자동차에 국산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했다. 세계 최초로 32인치짜리 초고성능(UHP) 타이어도 개발했고, 가장 많은 친환경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라는 위상이 오히려 위기를 촉발하는 배경이 됐다.

대우건설 인수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 부족에 몰린 그룹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융비용을 떠안아야 했고 결국 2009년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한국타이어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중에도 2010년 한때 공장가동률 등 각종 경영지표가 호전되고 2/4분기에 흑자로 전환하며 정상화가 예상됐으나 노사 갈등과 대규모 리콜 사태가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5>